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신발간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김태은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7호 통권37호

하절기 연변과의 싸움

물똥과 설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조류에서는 어디까지가 설사이고 연변인지 구별하실 줄 아시는지요? 그러면 왜 연변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연 상태로 방사시키는 닭들은 연변을 보기가 극히 어려운데 대단위로 키우는 닭들은 왜 연변이 흔할까요?

중요한 것은 첫째로 생산성에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유류 동물에서는 증체와 산육, 비유량 등은 정상인데 연변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음수량 과다나 사료의 고영양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즉,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조섬유 성분은 적어지게 되므로 장내에서 수분흡수에서 무리하게 되어 연변이 됩니다. 그러나 설사는 영양분과 전해질까지 체외로 배출되므로 증체가 늦어지고 유량·산란율이 역시 저하됩니다.

하절기 닭에서의 연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몇가지 살펴 봅시다.

- Water Meter(수량계)를 설치하여 음수량과 사료량의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 적정 사육면적보다 5%정도를 줄여주고 있습니까?
- 고온시에 분무를 하여 온도를 낮춰줍니까?
- 분무후에는 환기팬을 가동하여 습도를 조절해 주십니까?
- 하절기에 장내 미생물균총의 안정을 위하여 생균효모제, 효소제 등을 급여하십니까?
- 계분이 금방 건조되도록 환기량을 늘려주고 있습니까?
- 연변 발생시에라도 표준체중을 비교하기 위해 주 1회씩 체중을 측정합니까?
- 대장균증 감염, 콕시듐 발병, MG에 의한 소화기성 질병은 연변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계분을 잘 살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료적인 원인중에는 급이기 바닥에 오래 깔려 있던 것들의 변질이나 곰팡이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영양적으로는 저단백 대두박을 사용할 때 칼륨(K)함량이 높아서 연변이 되기도 합니다. 우지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료들은 산패하기 쉬우므로 농장에서 기한을 넘긴채 급이거나 통에 오래 있으면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연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개선 요인은 첫째로 스트레스 개선에 있습니다.

- 환기량을 늘려서 온도를 낮춰주고
- 계사 지붕단열을 보완해 주거나
-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내려주며
- 사육 면적에 여유를 주고
- 새벽과 야간급이를 증가시키고
- 더운 한낮에는 계사 출입을 삼가며
- 급이기 숫자를 늘리는 등 닭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줍니다.

특히 초코렛색 계분이나 적갈색 변이 나오면 콕시듐일 확률이 높지요. 또 적색변은 장염인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분 균형이 깨질때면 가장 먼저 그리트를 1천수당 11kg정도 중간 입자도의 크기로 주면 좋습니다.

또한 유기산재제와 생균효모제 급여도 좋으며, 심하게 바닥이 질은 곳에는 깔짚 보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총배설강이 지지분해지며 앞가슴살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며, 계사내 가스 발생을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연변의 두 번째 개선 요인은 음수량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서 정기적으로 급수파이프와 음수 소독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관리! 하절기 관리입니다.